

■ 서귀포시, 취약계층 모니터링·다중시설 방역강화·복지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안간힘

전통시장엔 예비비 활용 수시방역·마스크 등 지원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취약계층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등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통시장에 대한 수시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3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내 기본

수칙 준수 철저와 시설에 대한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외부인의 시설 출입과 입소자 외출·변화·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이 지정한 전담 관리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은 지역의 인적망을 활용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다중이용시설인 서귀포시 관내 7개 전통시장에는 예비비를 투입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방역을 최우선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나선다. 전통

시장에 손 세정제 230개, 마스크 2000개를 지원한데 이어 앞으로 마스크 2만여개를 확보하는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해지된 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한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와 매출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중 긴급생계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증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

는 시 관내 149곳의 경로당이 임시휴관에 들어갔고, 현재 프로그램이 휴강중인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대학은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임시휴관한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달 8일까지 휴강했는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계속하고 있다. 이해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지원대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감염증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마속기자 ms@ihalla.com

추자 신양항 레저형선박 계류사업 추진

도, 기본·실시설계 착수
2021년 조성 완료 목표



제주자치도는 추자면 신양항(사진)에 ‘국가어항 유류수역 내 레저형 선박을 수용하는 역마리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역마리나’ 사업은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레저형 선박의 증가 추세에 따라 국가어항 유류수역을 활용해 레저선박의 계류시설 설치, 마리나 시설과 연계해 어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양수산부와 국가어항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협의 절차를 거친다. 행정절차이행이 완료되면 약 20억원의 전액 국비예산을 투자해 2021년 조성을 완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레저선박들의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추자 신양항에 역마리나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레저선박의 해상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관광과 연계되어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레저선박 등록수는 2만3639척·조종면허 취득자수는 24만5000명으로, 2014년 동기 대비(1만2985척·15만3000여명) 선박 등록수는 1.8배, 취득자수는 1.6배 정도 증가했다. 오은지기자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상생과 배려로 어려운 제주경제 여건을 돕고 일어나자”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료’ 운동 눈길

도, 공유재산 임대료 30~50% 감면… 경제계 ‘상생 호소문’ 발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폭 감면된다.

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415개소(지하상가 300개소·사무실 101개소·상가 14개소) 임대료 30%, 공설시장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415개소의 1년 임대료는 17억원

(지하상가 10억원·기타 7억원)이며, 이번 조치로 총 4억20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도는 공유재산 현행 사용요율 5%를 한시적으로 1%만 적용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요율 인하가 적용되면 약 13억6000만원의 감면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도 이날

오전 도청 기자회견을 찾아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도내 결혼식, 돌잔치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기·취소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행사 취소에 따른 과다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한편 소비 둔

제주바다지킴이 채용 연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채용절차가 2주간 연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청정제주바다지킴이 배치를 3월 초순까지 체력인증시험 및 면접시험을 마무리해 오는 16일쯤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도내 확산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를 2주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바다지킴이는 오는 4월 1일부터 배치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 ▷위약금 피해 최소화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도 민간의 계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합법적인 선에서의 조정 및 권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악상황에 놓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합동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가족·여성복지시설 8일까지 임시휴관

제주시 “코로나19 예방위해”

제주시 관내 가족시설(기관)과 여성복지시설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여성가족부 휴관 권고에 의해 지난달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시 관내 가족시설(기관)인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임시휴관한다고 1일 밝혔다.

가족시설(기관)은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임시 휴관으로 대상자를 찾아가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취약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등은 중지된다. 하지만 온라인, 전화 등 비대면 업무와 긴급 상담은 진행되며 특히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유지된다.

또 시 관내 통합상담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등 7개 여성복지시설도 임시휴관을 실시한다. 임시휴관하는 여성복지시설은 통합상담소(1개소),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1개소), 성폭력 피해상담소(2개소), 성매매 피해 이용시설(2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1개소) 등이다.

임시휴관 동안에는 서비스 제한분야를 안내하고 긴급 상담 등 필수사항은 비대면 서비스(전화, 온라인, 문자 등)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윤형선임기자 yhle@ihalla.com

신산머루 노후주택 수리 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산머루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제주시는 올해 8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내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신산머루 뉴딜사업지구 내 주택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1000만원(자기부담금 10%)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범위는 지붕,

담장, 대문, 옥상, 벽면 등 외부경관 개선에 지원된다.

지난해는 총사업비 10억2300만원 중 2019년 사업으로 예산 2억7000만원을 투입해 23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이뤄졌다.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3억여원을 투입, 쾌적한 정주여건 향상 및 도시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 2곳을 완료한데 이어 3월초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및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윤형선임기자

장학생선발공고

2020년도 진주강씨 제주영통악파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선발대상**
○ 본회 종친회 회원의 자녀로서 재학중인 대학생 (단, 타기관의 장학금 수혜 대상인 자는 제외)
- **선발인원** : 대학생 10명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2일(목) ~ 3월 13일(금)
○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 **접 수 처** : 종친회 사무실(사무국장·총무부장)
- **제출서류**
1) 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전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보호자의 과목별납세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 1부
5) 당해년도 1학기 등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
6) 서 약 서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 1부
7) 사 진 (반명함판) 1부
- **선발방법** : 본 회 장학생 선정 심사규정에 의함
- **기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강 용 식 010-6798-7766
- 총무부장 강 승 우 010-2255-9051
- 종친회 사무실 제주시 서광로 162(3층)

진주강씨제주영통악파장학회
회 장 강 만 희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꽝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 자 자**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해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병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 립 종 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글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